

한국타이어, 차남 조현범 3세 경영

누나 중립으로 '형제의 난' 없을 듯... 글로벌 M&A 모색

(조희원)

父 조양래 회장 지분 전량 인수
글로벌 인수합병 등서 성과
R&D, 시장 선도 의지 돋보여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이끌 3세 경영인으로 조현범 사장이 낙점된 것이다.

조현범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뒤 13년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6년 뒤인 2017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조현범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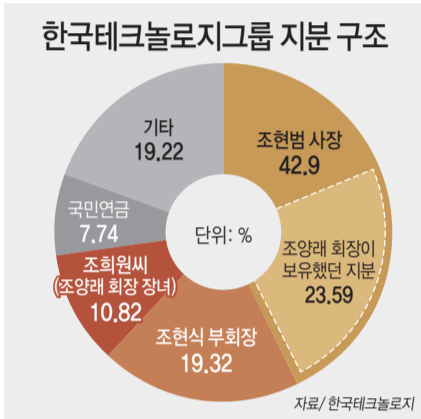
◆조현범 사장 그룹 지분율 42.9% 확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조현범 사장의 보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은 19.31%에서 42.9%로 높아졌다. 형인 조현식 부회장은



(작은 사진)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19.32%, 누나인 조희원씨는 10.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그룹 지주사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한국네트웍스, 한국가엔

라이프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동안 조현범 사장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OO(최고운영책임자·사장)와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을, 장남 조현식 부회장은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을 맡아 형제경영을 해왔다. 이번에 조양래 회장이 전격적으로 주식을 조현범 사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면서 후계 구도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현범 사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현식 부회장과 조희원씨의 지분을 합치면 30.14%가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7.74%)까지 합세하면 조현범 사장과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형제의 누나인 조희원씨가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권 분쟁의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극적 M&A 통한 회사 경영 이끌어

조현범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글로벌 M&A를 통해 그룹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현범 사장은 2018년 독일 타이어 유통기업 '라이펜-물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라이펜-물러는 1966년 1호점 설립을 시작으로 독일 중남부 지역에서 4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타이어 전문 유통점이다. 연간 독일에서 판매하는 승용차용 타이어와 트럭, 버스용

타이어가 240만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타이어 제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 비즈니스도 강화했다.

앞서 조현범 사장은 2017년 2월 호주 타이어 유통회사 '작스타이어스' 인수해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을 도입,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글로벌 4000여개 유통채널에 도입하며 성공적인 인수 합병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조현범 사장은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합성고무 기업인 '아란세오'와 고성능 타이어용 합성고무 기술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타이어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합성고무 원료 및 적용법을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 프로토타입(시제품) 솔루션 기업인 '모텔솔루션'을 인수하는 등 제품 개발뿐 아니라 유통 채널 다각화 등 조현범 사장 체제 하에서 빠르게 체질개선을 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상직 지분 포기에도 이스타 M&A 난기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오너일가 의혹 사죄"
제주항공 여전히 묵묵부답

제주항공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오너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식 포기' 결단에도 M&A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은 과거 불법 경영권 승계 등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100억원가량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그런데 현재 39.6%의 지분으로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 의원의 자녀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33.3%)와 아들 이원준 씨(66.7%)에 의해 100% 소유한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이스타항공이 불법 경영권 승계의 장으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을 적법하게 마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협상에 난항을 빚던 제주항공과의 M&A 성사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들에게 월급여의 40%만을 지급하고, 이후 무급으로 대응하며 약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다. 이에 제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지난달 29일 강서구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유상 경영본부장.

항공 측에서는 지난 5월 해당 체불임금에 대한 해소를 이스타항공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과의 협상도 부진한 상황에서, 오너일가에 대한 의혹까지 확산되자 이 의원은 '주식 헌납'을 타개책으로 삼고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이스타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인 이 의원 등 오너일가가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분(39.6%)을 전부 이스타항공 측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오너일가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지분 헌납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여전히 제주항공과의 M&A가 '시계제로'라는 데 있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지분의 매각으로 생길 410억원의 자금을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항공과의 최종 인수가 성사된 이후 해당 자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 의원의 지분 헌납 결단에 따른 제주항공 측의 입장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너일가의 지분 반납 결정에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아직까지 이스타항공의 입장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 중이다. 한 번도 6월말 등을 계약 종료 일이라고 말할 적이 없고, 공시에 보면 인수 종결은 양사가 합의하는 날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진양곤 "나도 옵티머스 피해자"

(에이치엘비 회장)

"사재출연으로 손실 없도록 할 것"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사진)이 최근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고백했다. 회사가 피해를 볼 경우 사재를 출연해 손실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진 회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해 수 백 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운을 뗐다. 그의 고백 속엔 지난 4월 2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 6월 11일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에이치엘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300억원을 위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에이치엘비의 IR(기업설명회) 원칙은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펀드의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내용을 신뢰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피해사 재출연에 회사에 단 한 푼의 손실조차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번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엔 철저하게 안정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 주요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회장은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옵티머스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전남 서울남부지방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 회장도, 에이치엘비도 피해자인데 굳이 먼저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주가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 관계자들도 사재 출연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자산운용을 하는 것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투명 경영,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주와 소통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방식이라는 호평으로 해석된다. 사재출연까지 해서 기업의 손실을 막겠다고 나선 만큼 주주의 신뢰를 쌓아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에이치엘비 주가는 4% 이상 하락했다. 전일보다 4.54% 떨어진 9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송태화 기자 alvin@